

GIST 학생들, 교통사고 AI분석 솔루션으로 창업 경진대회 2회 연속 수상

- '로봇 인공지능 강화학습 연구실(지도교수 류제하)'에서 수행한 AI 교통사고 예견 연구 성과를 응용해 개발한 솔루션 선보여 창업 경진대회 우수한 성과 연달아 거둬
- 교통사고 현장 영상자료 신속하게 분석해 사고 유형과 책임 소재 파악해 분석 보고서 자동 생성... 사고 처리 과정 단축 및 정확한 과실 비율 산정으로 법적 분쟁 최소화



▲ (왼쪽부터) 융합기술학제학부 박사과정 이후상,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학사과정 박주성·김준호 학생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학사과정 박주성·김준호 학생과 융합기술학제학부 박사과정 이후상 학생으로 구성된 '어시스트' 팀(지도교수 류제하)이 최근 창업 경진대회에서 두 차례 연달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사고 리포트 자동제작 솔루션을 선보인 '어시스트' 팀은 '제1회 PSD(Pre Startup Dream) 창업경진대회'와 '2024년 창업중심대학 청년 창업 아이템 챌린지(호남권)'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들이 개발한 솔루션은 융합기술학제학부 류제하 교수가 이끄는 '로봇 인공지능 강화학습 연구실'에서 수행한 AI 교통사고 예견 연구 성과를 응용한 것이다.

'어시스트' 팀이 제안한 창업 아이템은 '인공지능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차량의 사고 형태와 과실 비율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솔루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현장의 영상 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해 사고의 유형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리포트(교통사고 분석 결과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를 통해 사고 처리 과정을 단축하고, 정확한 과실 비율 산정으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시스트' 팀은 지역 대학(원)생의 참신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PSD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국립목포대학교 총장상)**과 함께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7월 23일에는 **국립목포대 창업보육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모델 고도화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됐다.

'어시스트' 팀은 또한 8월 6일 열린 '**2024년 창업중심대학 청년 창업아이템 챌린지(호남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 대회는 도전 K-스타트업의 지역 예선으로 **호남권역 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팀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주성 학사과정생은 "**류제하 교수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열정적인 지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어시스트' 팀은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결실을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